

책읽기의 억울함 책쓰기의 부끄러움

정진홍

서울대 교수, 종교학

올해는 일컬어 '책의해'이다. 이런 저런 일들이 이를 기러 여러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 당연히 책에 관한 소리들이 사뭇 현란하다.

“책을 읽자. 책을 읽지 않으니 무식하고, 책을 읽지 않으니 교양이 없고, 책을 읽지 않으니 뒤떨어지고, 책을 읽지 않으니 사람 꼴이 되지를 않는다. 책을 읽자!”

사뭇 감격스럽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격려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책을 열심히 읽게 되면, 무식도 면하고, 교양도 쌓이고, 남보다 훨씬 앞서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내가 어딘지 휘어져 바르지 못해 그런 것이겠지만, 이런 소리의 숲속에 서있노라면 슬그머니 억울해진다.

나는 '책 읽기'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식함과 교양있음과 앞서감과 사람됨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여김직하게 하는 선언에는 공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빙자한 '방자한 질책'의 소리가 가득한 숲속에 서면 억울하다 못해 화가 나버린다. “파이, 책 좋아 하시네.”하는 비아냥거림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 적어도 내 경험에 의하면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대체로 조용히 책을 읽지 “책을 읽자”고 남에게 강권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인데 그 逆도 참이다.

그런데 그래도 책을 읽기로 마음 먹고 “퍼낸 책”들을 서점에서 뒤적이게 된다. 그런데 그럴 때면 그 분노조차 처량해진다.

며칠 전, 나는 버릇처럼 되새는 詩에 대한 갈증을 풀고 싶어 서점에 갔다. 수 백권 시집을 뒤적이다가 나는 지쳐버렸다. 그야말로 내 무식과 교양없음과 뒤쳐짐과 사람답지 못함 탓일까. 내가 발견한 것은 내 갈증을 풀어줄 시가 아니라 '책 퍼내기'의 부정적, 사치, 기만, 교활함……. 그런 것이었다. 例外가 없으란 법이 왜 없을까라는 그러나 예외와 日常의 顛倒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다. 그러다 생각이 엉뚱한 데 미쳤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책 읽기'를 강요하고 있을까? “책 퍼내기”의 주역들.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안 속는다. 안 속아. 너희들도 이제는 더 속이려 들지마.”

강요된 '책 읽기'에 대한 억울한 분노, 기만의 옷을 사치스럽게 입고 버젓이 자기를 펼치고 앉아 있는 책 퍼내기의 실상. 그 소용돌이를 헤매이다가 나는 시집의 서가에서 멀지 않은 다른 분야의 서가에서 내 책을 보았다. 책 읽기를 권하는 似而非한 권위와 책 퍼내기를 殉敎처럼 묘사하기를 즐기는 기만과 교활함이 철철 넘치는 그 서가에 내 책이 꽂혀 있는 것이다. 내 책이.

나는 그 '책 쓰기'의 과정을 안다. 책 쓰기의 뻔뻔스러움. 그 뻔뻔스러움에 가려 누구도 볼 수 없는 내 속 얼굴. 그 오만함. 그 처절하게 못난 나르시즘. 그리고 책 읽기를 요청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 경멸. '책 퍼내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굴한 웃음…….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 나오며 못사람에게 들킨 현행법인 양 부끄러워 괴로운데, 문득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광고판의 글이 섬찟하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은 망한다.”

'책 읽기' '책 퍼내기' '책 쓰기'. 책 쓰기, 책 퍼내기, 책 읽기. 책 읽기 퍼내기 쓰기. 퍼내기 읽기 책 책 책…… 나는 아직 조금 억울하고, 분하고, 딱하고, 많이 부끄럽다. '책'을 만나면, 그리고 '책'을 떠올리면 늘 그랬었는데 올해는 책의해여서 한껏 그러하다.

뉴스	2	학습참고서 저작권 이용료 부과 · 외
표지인물	4	인생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서정의 세계 신작시집 「생명」 펴낸 피천득씨
초점	6	실명제 충격, 출판계엔 어떤 영향 미치려나 자금압박 등 우려되나 장기적으로 긍정적 계기 될듯
서평	8	최몽룡 「한강유역사」 — 이창규 최창조 외 「풍수, 그 삶의 지리」 — 이몽일 9 김인회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 이길상 교육학회 「한국현대교육의 재평가」 — 이광호 10 임희섭 외 「오늘의 한국사회」 — 전병재 우드 「계급으로부터의 후회」 — 신 현 11 신대철 「우리음악의 맛과 소리꼴」 — 전인평 김재홍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 — 이승원 12 조동일 「한국사기의 역사인식」 — 김명호 권성우 「비평의 매혹」 — 신철하 13 이청준 「그 노래 다시 부르지 못하네」 — 이동하 르원틴 「우리 유전자 안에 있네」 — 이병훈
화제의 책	14	독자적 미학 비탄한 조각사의 독립선언 유성웅 엮음 「세계조각사」
출판화제	15	인도문화 번역소개 점차 활기 띤다 한두경전 「마하바라타」 등 번역되며 독자 관심끌어
문학시론	16	우리 소설 속의 월남전 수용양상 — 정호웅 박영환의 「머니면 송바강」서 안정효의 「하안전쟁」까지 18 북한문학의 한국문학사 편입,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이직은 소개나 개관 수준… 통일문학사 서술의 준비단계
리포트	19	출판유통 현대화 주도하는 유럽의 대형 물류센타 네델란드 센츨렐 북 하우스사 사장단 간담회
참관기	20	아시아 출판의 정체성과 세계화 — 이종국 중국 북경의 제6회 국제출판학회
저자인터뷰	22	“현대문명 이끈 과학기술의 출생지” 「엑스포와 미래이야기」 펴낸 오명 엑스포조직위원장
이색출판	23	추석날 모여 놀아봄직한 전통놀이의 복원 「박씨네 시조놀이」 박덕규 외 펴냄
세계의 책	24	인간적 감정 드러내는 숨겨진 개의 삶 — 배병삼 26 화제의 신간 28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